

# 三要諦의 實踐修道論的 意味

-敬을 中心으로-

尹起鳳\*

## 目次

I. 序論	IV. 南冥 曹植의 敬思想
II. 朱子の 敬思想	1. 內明者敬 外斷者義
1. 敬에 대한 朱子の  해석	2. 實用之學으로서의 敬과 義
2. 修養法으로서의 敬	V. 大巡思想의 敬思想
3. 敬의 實踐 綱領	1. 修養論으로서의 敬과 敬天
III. 退溪 李晃의 敬思想	2. 敬의 實踐方案과 修道
1. 聖學十圖에 나타난 敬의 의미	VI. 結論
2. 敬의 현실적 실천	

## I. 序論

대순사상을 논구함에 있어서 그 가치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있다는 그것은 아마 상제님을 신앙하는 수도인들의 실천수행에 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실천수행을 위해서는 그 수도행위의 지침이 되는 訓典과 要諦로서의 기본적 수도자세가 필요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를 대순사상에서는 四綱領과 三要諦로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신조에 해당하는 사강령과 삼요체는 어느 하나의 실천수행만으로는 수도인들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으며, 항상 조화로움속에서 신조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

\*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본 고에서 대순사상의 신조로서 수양론으로서의 한 요체인 敬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논의함에 있어 原始儒家의 敬사상을 철학적 체계로 집대성한 朱子의 敬사상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며, 수양론에 있어서의 새로운 사상체계를 형성한 敬사상이 유학의 조선전래와 그 맥락을 같이함을 통하여 敬사상을 한국적 정신으로 투영시킨 退溪李滉의 수양론으로서의 敬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退溪와 같은 시대를 살다간 南冥曹植이 주장한 실천철학이자 실용지학으로서의 敬사상을 고찰을 통하여 敬사상의 실천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을 통하여 敬사상이 단순히 유학의 수양론으로서의 관념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실천지향적인 생활철학으로서 작용하여 왔음을 살펴봄과 아울러 한국인의 정서속에서 상제를 경배하고 공경하는 종교적 심성의 태동과 한국적 정신으로의 전개를 고찰해보는 것으로 그 연구방법을 삼기로 한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대순사상의 신조로서 수행의 한 요체인 敬이 어떻게 승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대순사상의 신조로서 수양론으로서의 한 要諦인 敬의 교리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 II. 朱子의 敬思想

### 1. 敬에 대한 朱子의 해석

학자들이 儒學을 정의함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修己治人之學’이라고 규정짓는다. 그럼으로 인해 治人에 비중을 둘 경우에는 유학이 정치철학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宋代의 新儒學者들은 오히려 ‘修己’에다 비중을 두면서 개인의 도덕적 인격 수양을 강조하게 된다. 이는 이상사회건설을 위해서는 治人에 앞서 修己에 더욱 더 많은 것을 할애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은 修己를 통한 도덕의식의 함양이 곧 정치,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확신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관심은 修己, 즉 개인의 인격수양에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北宋초기의 이와 같은 경향은 程顥와 程頤를 거쳐 朱子에 이르러 새로

은 사상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修養論이 敬思想이다.

敬의 字形은 이미 「書經」에서 나타나고 있으며<sup>1)</sup> 도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공자에 와서 「修己以敬」으로 되었다.(김태영, 1988:7)

敬은 內外, 動靜, 性情, 體用, 已發未發, 中和, 나아가 心身을 관통하고 있으며 明體適用의 지혜를 체득케 해 주는 주관과 객관의 합일이 이루어지는 修養工夫이다.

宋代 新儒學的 修養 방법인 敬 공부란 육체적인 氣質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개인적 欲望을 잘 다스려 本性의 理致에 따르도록 善意志를 길러 나가는 것이다.

朱子は 理致(理)體得의 방법과 人格 修養의 방법은 格物窮理와 居敬涵養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格物窮理는 개개 사물과 개인의 행위(事)를 대상으로 ‘存在原理’와 ‘當爲法則’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알아내려는 지적활동이며, 居敬涵養은 마음을 한결같이 통일하여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는 도덕적 본성(天理:本性의 理致, 性)을 體認하며, 실제의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이러한 도덕적 본성에 따라 감정(情)이 발현될 수 있도록 경건하고도 진지한 마음가짐(敬)을 유지하는 德性 工夫이다.(김수청, 1994:146-147)

朱子は ‘周易’을 읽다가 ‘敬以直內 義以方外’의 두 구절을 얻게 된다.

「곧다(直)는 것은 곧 바름(正)이요, 방정하다(方)는 것은 곧 옳은 것(義)이다. 君子는 敬以直內하고 義以方外하여, 敬義가 서면 德이 외롭지 않다. 곧고 방정함이 크게 되어서 거둬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는 것은 그가 행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2)</sup>

敬以直內, 즉 敬으로써 마음을 곧게 한다는 것은 털끝만큼의 사사로운 생각도 없어서 마음속이 환하게 빛나서 위로도 꺾뚫고 아래로도 꺾뚫으며, 겉과 속이 하나와 같이 되는 것이며, 義以方外 즉 義로써 언행과 용모를 방정하게 한다는 것은 옳은 것을 보면 處決이 반드시 그와 같고, 옳지 않으면 처결이 반드시 그와 같지 않아 칼로 자른 듯이 극히 방정한 것을 말한다.<sup>3)</sup>

1) 「惟不敬厥德乃早墜厥命」(書經, 召誥)

2) 「直 其正也, 方 其義也. 君子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立而德不孤, 直方大不習無不利, 則不疑其所行也」(周易, 文言:坤六二)

敬以直內는 持守 工夫이며 義以方外는 講學 工夫이다. 다시 말해서 敬以直內는 내면적 수양공부이며 수양공부의 體인데 이는 내적 공부가 초가 된다는 뜻이지, 외적인 團束과 아무 연관이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敬以直內의 수양공부란 敬공부를 통해서, 天理가 자기에 본래적으로 內在 있음을 體認해 가지고, 涵養 精進하는 가운데 자기의 도덕적 주체성을 확립해 가는 공부이다.(牟宗三 著/宋恒龍 譯, 1985:31) 義以方外는 외면적 실천공행이며 수양공부의 用이다. 그리고 이 양자가 ‘表裏如一’하다는 것은, 수양의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수양의 결과 얻어지는 효과는 일치한다는 의미이다.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모두 바깥에 드러난다. 그러므로 오직 마음 속을 곧게 하지 못함을 두려워하라. 마음 속이 곧게 되면 바깥은 반드시 방정하게 되기 때문이다」<sup>4)</sup>

이는 敬以直內 없이 義以方外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義以方外 없이 敬以直內가 불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敬以直內와 義以方外 공부는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칠 수 없는 것이다.

朱子는 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敬이란 다만 하나의 ‘畏’字이다. 朱子에 의하면 畏란 ‘경계하고 두려워한다’는 의미이고, 天命은 ‘하늘이 부여한 바른 이치’이다<sup>5)</sup> 결국 畏란 항상 마음을 경건하게 가지고, 두려운 듯 주의하면서 본심을 간직하는 것이다.

둘째, 敬이란 일에 따라서 자신을 點檢하는 것이다.

「二先生(程顥와 程頤)이 敬 字에 대해 논의한 것은 반드시 靜과 動을 포괄하여 꿰뚫고 있는 것이라 보아야 옳다. 대개 일이 없을 때 存養하고 主敬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진실로 敬이며, 사물과 대응할 때 酬酌이 어지럽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敬이다.」<sup>6)</sup>

- 
- 3) 「敬以直內 是無纖毫私意, 胸中洞然, 徹上徹下, 表裏如一. 義以方外, 是見得是處 決定是恁地, 不是處決定不恁地?然方方正」(心經發揮, 卷一)
  - 4) 「程子曰 有諸中者, 必形諸外. 惟恐不直內, 內直則外必方」(心經發揮, 卷一)
  - 5) 「畏者 嚴憚之意也, 天命者, 天所賦之正理也.」(論語, 委氏, 朱熹註)
  - 6) 「二先生所論敬字, 須該貫動靜看方得. 夫方其無事而存主不懈者, 固敬也. 及其應物而酬酌不亂者, 亦敬也」(朱子大全, 卷四十五, 答廖子晦)

일상의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도 항상 반성하는 생활태도, 이것이 곧 敬이라는 것으로, 일상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敬을 돈독히 생각하고, 일에 임해서도 늘 敬의 태도를 견지하려면, 항상 다시 자신을 점검해 보는 태도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敬이라는 것은 본래 말없이 가만히 앉아서 일이 없을 때만을 기다려 행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敬은 마음을 거두어 들여 하나의 私欲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敬이란 하나의 일로만 만들어 보지 말라. 경이란 자신의 정신을 수습하여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을)오로지 하고 한결같이 하는 것(專一)이다.」<sup>8)</sup>

敬은 곧 마음의 방종을 경계하는 자기 절제의 중요한 방법이다.

넷째, 敬은 일에 따라 그 일에 마음을 集中하는 것이다. 主一을 敬이라고 한다.

이는 程頤가 주장한 말인데, 朱子는 이에 대하여

「마음이란 넓고 크기가 천지와 같고 텅비어 밝기가 일월과 같다. 한가하고자 하면 도리어 마음은 한가롭지 못하고 사사로운 욕망을 따라서 달아난다. 만일 한가함을 바라지 아니하면 마음이 오히려 한가롭게 되어 주관하게 된다.」<sup>9)</sup>

라 하였다. 그러므로 朱子에게 있어서 敬이란 다만 하나의 마음이 한가지의 일을 주관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의 마음이 하나의 이치를 주관하는 것이다.

다섯째, 敬은 마음을 항상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謝良佐(1050-1103)가 주장한 말이다.

이에 대해 朱子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敬은 단지 항상 깨어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른 바 고요한 가운데 하나의 깨어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다만 항상 안에 또렷하게 깨어 있음이 있다는 것일 뿐이다. 마음을 고요히 함이란 잠에 떨어져 있는 것이

7) 「所論敬字工夫, 於應事處用力爲難, 此亦常理. 但看聖賢說, 行篤敬, 則敬字本不爲默然無爲時設. 須向難處力加持守, 庶幾動靜如一耳」(朱子大全, 卷五十, 答周舜弼)

8) 「敬, 莫把做一事看, 只是收拾自家精神, 傳一在此」(語類, 卷十二)

9) 「心廣大如天地, 虛明如日月. 要閑, 心却不閑, 隨物走了. 不要閑, 心却閑, 有所主」(語類, 卷十二)

아니다。」<sup>10)</sup>

常惺惺은 항상 깨어 있어 昏昧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여섯째, 敬은 몸가짐을 端整히 하고, 태도를 嚴肅하게 하는 것이다.

程頤가 敬에 대해 규정한 말이다.

「整齊嚴肅은 곧 持敬의 공부이다. 持敬이란 整齊嚴肅, 嚴威儼格, 動容貌, 正思慮, 正衣冠, 尊瞻視 등 여러 가지 의미의 말로 설명되는데, 이들을 실제의 일상생활에서 성실히 실천만 한다면 이른 바 直內, 主一은 저절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安排(의도적으로 따져서 헤아림)할 것도 없이 心身이 肅然해지고 表裏가 如一하게 된다」<sup>11)</sup>

朱子の 敬思想은 二程을 계승한 것이지만 그들의 敬이 일부 禪學에 오염된 것이라고 보고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朱子가 敬工夫를 중시한 것은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대개 放縱하고 放逸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전제했기 때문이다. 放心하여 本性을 잃어버리면 怠慢, 私欲, 貪欲, 私意 등이 제 멋대로 흘러 天理를 깨달을 수가 거의 없어지고, 마음 속이 혼탁하고 막혀서, 마침내 사사로운 욕망으로 흐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천리에 대한 畏敬心이라든가 일상의 일에 대해 反省하는 마음이 생길 리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을 다잡아 다스리기 위한 처방으로서 내려진 것이 敬에 의한 修養工夫였다.(김수청, 1994:173-179)

## 2. 修養法으로서의 敬

朱子는 여러각도로의 검증을 통해 敬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내리게 된다.

敬이란 未發時와 已發時의 修養工夫를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修養法이다. 未發과 已發을 동시에 꺾어 뚫는 이러한 敬에 의한 수양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未發時와 已發時의 각각에 대한 修養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10) 「敬只是常惺惺法. 所謂靜中有箇覺處, 只是常惺惺在這裏. 靜不是睡着了」(語類, 卷六十二)

11) 「問敬, 曰不用解說, 只整齊嚴肅便是. 又曰持敬之說, 不必多言, 但熟味 '整齊嚴肅', '嚴威儼格', '動容貌, 正思慮', '正衣冠, 尊瞻視' 此等數語, 而實加工焉, 則所謂直內, 所謂主一, 自然不費安排, 而身心肅然, 表裏如一矣」(語類, 卷十二)

해답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朱子에 따르면 未發時에는 涵養(體認·涵養)할 것을, 已發時에는 省察할 것(察識·省察)을 주장하면서 이 둘의 조화를 통하여 완성에 이르는 것이 敬공부의 목적이자 완성이라 하였다.

未發時의 수양론에 해당하는 것이 居敬涵養이다.

居敬이 ‘경건함에 거한다’ ‘스스로 경건하게 처신한다’라는 의미라면, 涵養이란 종이 물을 머금고 그 자신이 물에 폭 베이는 것과 같이 ‘폭 익도록 본성을 보존하고 기른다’는 의미이다. 일상생활의 복잡한 사유와 행위를主宰하는 것이 心인바, 이 마음이 곧 未發의 本性이며 이 未發의 본성을 보존하고 기르는 것이 未發時의 수양방법이며 이것이 居敬涵養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已發時의 수양론인 省察이란 已發의 마음에서 이 세상의 理致를 탐구하여, 未發의 본성에 부여된 이치까지도 남김없이 깨닫는 것이다. 이는 모든 자연의 이치가 자기자신의 마음의 본성에 부여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은 곧 자기자신의 내면속에 자리잡은 마음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 된다.

未發時의 認識涵養과 已發時의 察識省察은 모두 한 곳, 즉 朱熹의 敬에 의한 修養法으로 수렴된다.

朱子는 未發時의 도덕적 본성(性)을 원래 그대로 保存 涵養하고, 已發時에는 감정이 항상 中和常態에 이르도록 성찰하기 위한 방법으로 敬이라는 修養方法을 무엇보다 중요시 했다. 朱子가 敬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음의 말은 그의 학문 세계에서 敬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했는가를 잘 나타내 준다.

「하루는 ‘大學’을 읽고 토론하는 데, 여러 사람이 모두 ‘매양 생각이 어지럽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대해, ‘다만 이는 敬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敬은 항상 깨우치고 깨어 있는 수양법으로, 敬공부를 주로 하면 모든 일이 다 이것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도무지 『나의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스스로 마음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서, 모두가 다른 일을 알려고 하고, 또한 집안을 다스리고(齊家), 나라를 다스리고(治國), 천하를 평화롭게(平天下)하려고 한다. 마음이라는 것은 몸의 주체이다. 배를 저어가는 데는 상앗대를, 밥을 먹는 데는 숟가락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앗대나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마음을 가다듬어 흩어지

지 않게 하는 것은 다만 敬뿐이다. 敬공부를 하자마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등산하는 것도 다만 이 마음(心)이요, 물에 들어가는 것도 다만 이 마음(心)이다.»<sup>12)</sup>

朱子が 의도한 학문의 목표가 있었다면 그것은 敬이라는 修養工夫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이것을 토대로 實踐躬行하는 것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김수청, 1994:148)

「敬은 未發과 已發을 다 관통하는 철상철하의 의미이다. 격물치지도 곧 그 사이에서 차례를 따라 진보해 나갈 뿐이다.»<sup>13)</sup>

朱熹에 의하면 마음을 已發과 未發로 나누지만 이를 각각의 독립적인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未發의 마음이라도 이에는 已發의 마음이 내재해 있고, 已發의 마음이라 하더라도 이에는 未發의 마음이 내재해 있다고 보았다.

未發의 마음은 고요하고(靜), 조용하다(寂). 그래서 寂然不動이라 한다. 그러나 외부의 사물과 마주치게 되면 언제나 움직이고(動) 반응한다(感). 그러므로 고요함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靜中之動’이라고 표현했다. 已發의 마음은 항상 움직이고(動) 감응한다(感). 따라서 感而遂通이라 한다. 외부의 사물에 반응하여 항상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움직임 가운데 고요함이 있다. 이것을 ‘動中之靜’이라 표현했다. 靜中之動에서나 動中之靜에서나 항상 고요함(靜)이 기준이며, 이 기준에 따라 움직임(動)을 조절하게 된다.(손영식, 1993:158-159)

朱子は 敬을 體와 用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敬이라는 글자는 움직임(動, 已發時)과 고요함(靜, 未發時)을 관통하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아직 발동하지 아니했을 때(未發時)에는 혼연한 것이 敬의 本體(體)이다. 그러나 그 발동하지 않음(未發, 즉 渾然한 상태)

12) 「一日因論讀『大學』, 諸生 答 ‘以每爲念慮攪擾’, 曰 ‘只是不敬. 敬是常惺惺法. 以敬爲主, 則百事 皆從此做去. 今人 都不理會『我底』. 自不知心所在, 都要理會他事, 又要齊家治國平天下. 心者, 身之主也. 撐船, 須用蒿; 喫飯, 須使匙. 不理會心, 是不用蒿不使匙之謂也. 攝心, 只是敬. 才敬, 看做甚磨事. 登山, 亦只這箇心; 入水, 亦只這箇心」(心經附註, 卷二)

13) 「大抵敬者, 是徹上徹下之意. 格物致知, 乃其間節次進步處耳」(朱子大全, 卷四十三, 答林擇之)



만 알고, 敬하는 공부는 그만두라는 것은 아니다. 이미 발동한 즉(已發時) 일에 따라서 省察하면 敬의 作用(用)이 행해진다. 그러나 본체가 원래(처음부터) 세워지지 않으면 그 작용이 역시 저절로 행해지지 않는 다. 그러므로 敬과 義는 별개의 구별되어진 일이 아니다. 반드시 어떤 일을 있게 하되 기필코 하려 하지도 말고, 잊지는 말되 조장하지도 말라. 그렇게 하면 이 마음은 또렷하게 움직임과 고요함을 관통하고, 敬이 확립되고 義가 실행되어 어디를 가더라도 理致의 올바름(正)이 아님이 없게 된다」<sup>14)</sup>

이것은 未發時의 敬공부가 ‘敬의 體’이고, 已發時의 敬공부가 ‘敬의 用’이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朱子에 의하면 未發時에 體認·存養하는 것은 敬공부의 本體이고, 已發時에 察識·省察하는 것은 敬의 作用이 되는 것이다. 수양공부로서 體認 存養과 察識 省察이 敬에 의해 하나로 종합 통일되면서 敬 思想의 양면을 이루게 된다. 결국 敬이란 마음의 상태를 살펴서 ‘도덕적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마음 공부를 말한 것인데, 마음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涵養된 것을 본체(體)로 삼고, 마음이 이미 발동했을 때 省察하는 것을 작용(用)으로 삼았다. 이러한 敬은 우리의 모든 지적인 활동과 도덕적인 생활에서 항상 경건하고도 진지한 태도로 사유하고 행위할 것을 요구한다.(김수칭, 1994:187-189)

### 3. 敬의 實踐 綱領

첫째, 敬齋箴이다.

敬齋箴은 朱子가 敬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修養 工夫의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一目瞭然하게 설명한 실천강령이다. 朱熹는 ‘張敬夫의 主一箴을 읽고 그가 남긴 뜻을 수집하여 『敬齋箴』을 저술하여 書齋의 벽에 써 붙이고 자신을 경계하였다’<sup>15)</sup>고 한다.

吳澄<sup>16)</sup>이 분석하여 해설한 내용에 따라 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敬字, 貫通動靜, 但未發時, 則渾然是敬之體, 是非知其未發, 方下敬底工夫也. 既發則隨事省察而敬之用行焉. 然非其體素立, 則其用亦無自而施也. 故敬義非兩( )事. 必有事焉, 而勿正, 心勿忘, 勿助長, 則此心卓然, 貫通動靜, 敬立義行, 無適而非理之正矣.」(朱子大全, 卷四十三, 答林擇之)

15) 「讀張敬夫主一箴, 掇其遺意, 作敬齋箴, 書齋壁以自警云」(朱子大全, 卷八十五)

16) 元나라 사람. 字는 幼清, 諡號는 文正, 이름은 澄. 草廬先生이라고 불렸다.

첫째, 고요할 때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靜無違)<sup>17)</sup> 둘째, 움직일 때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動無違)<sup>18)</sup> 셋째, 외모가 단정해야 한다.(表之正)<sup>19)</sup> 넷째, 속 마음이 단정해야 한다.(裏之正)<sup>20)</sup> 다섯째, 마음을 바르게 하여 일을 처리해야 한다.(心之正而達於事)<sup>21)</sup> 여섯째, 일에는 전일해야 하며 마음에 근본을 두어야 한다.(事之主一而本於心)<sup>22)</sup> 일곱째, 앞의 여섯 章을 한데 묶어 놓은 것이다.(總前六章)<sup>23)</sup> 여덟째,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는 병폐를 말한 내용이다.(心不能無適之病)<sup>24)</sup> 아홉째,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병폐를 말한 내용이다.(事不能主一之病)<sup>25)</sup> 열번째, 이 敬齋箴의 전체를 한데 묶어놓은 내용이다.(總結一篇)<sup>26)</sup>

이상에서 朱子는 箴에서 敬을 지키(持敬)는 공부의 내용을 말했다. 마음이 고요할 때와 이미 움직였을 때, 또 외모(행동)와 내적 마음 등을 도식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綱領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敬공부에 소홀했을 때의 弊害를 강조하여 警告한 것이 箴이다.

- 
- 17) 衣冠을 바르게 하며, 보는 시선을 존엄하게 하라. 마음을 깊이 가라앉혀 상제를 대하듯 하라.(正其衣冠, 尊其瞻視. 潛心以居, 對越上帝)
- 18) 발의 움직임은 반드시 중후해야 할 것이며, 손의 움직임은 반드시 공손할 것이니라. 땅을 가리어 건뒀 개미집도 피하여 돌아가라.(足容必重, 手容必恭. 擇地而蹈, 折旋蟻封)
- 19) 문을 나서서는 큰 손님 뵈옵듯이 하며, 일을 할 때에는 큰 제사를 지내듯이 하라. 조심조심하여 혹시라도 감히 안이하게 하지말라.(出門如賓, 承事如祭. 戰戰兢兢, 罔敢或易)
- 20) 입을 다물기를 병과 같이 하고 뜻을 방비하기를 城처럼 하라. 성실하고 신중하여 혹시라도 감히 경솔하게 하지 마라.(守口如瓶, 防意如城. 洞洞層層, 罔敢或輕)
- 21) 서쪽으로 갈 일에 (마음은) 동쪽으로 가지 말며, 북쪽으로 갈 일에 (마음은) 남쪽으로 가지 말라. 한가지 일을 당하여서는 (그 일에 마음을) 둘 것이며, 다른 데로 (그 마음이) 가지 않게 하라.(不東以西, 不南以北. 當事而存, 靡他其適)
- 22) 두 가지 일로 마음을 두쪽내지 말며 세가지 일로 마음을 세쪽내지 말라. 오직 마음을 하나로 하여 모든 변화를 살피라.(弗貳以二, 不參以三. 惟心惟一, 萬變是監)
- 23) 이처럼 하는 것, 이것을 경건함을 가지는 것이라 한다. (경건함을 가지면)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어긋남이 없고, 안과 밖이 서로 바르게 되리라.(從事於斯, 是曰持敬, 動靜弗違, 表裏交正)
- 24) 잠시라도 (경건함을) 떠나면 개인적인 욕심이 수만갈래로 일어나서, 불때지 않아도 뜨겁고 얼리지 않아도 차거우리라.(須臾有間, 私欲萬端, 不火而熱, 不冰而寒)
- 25) 털끝만큼이라도 (경건함에서) 벗어나면, 하늘과 땅이 그 자리가 뒤바뀌어 三綱이 사라져 없어지고 九法(洪範九疇)이 또한 썩어 문드러 지리라.(毫釐有差, 天壤易處. 三綱既淪, 九法亦斲)
- 26) 오호라! 사람이! 명심하라 경건할 것을. 墨卿이 경계하는 일을 말아서 감히 靈臺에 고하노라.(於乎小子, 念哉敬哉. 墨卿司戒, 敢告靈臺)

둘째, 夙興夜寐箴<sup>27)</sup>이다.

「닭이 울어 깨어나면 생각이 차츰 일어나니, 어찌 그 사이에 고요하게 정돈하지 않으리오. 지난 허물을 반성하기도 하고, 새롭게 얻은 것을 자아내기도 하여 순서와 조리를 명확하게 마음속으로 새겨두라. 그리고 묵묵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근본이 서게 되면 먼동이 틀 때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의관을 정제하고, 단정하게 앉아 몸가짐을 가다듬는다.

이 마음 이끌어 내기를 (동산에) 떠오르는 해처럼 환하게 하며, 몸은 엄숙하고 가지런해지며, 마음은 비워져서 밝게 되고, 고요해져서 한결같이 된다. 이런 준비가 끝나 곧 책을 펼치고 성인과 현인을 대하게 되면, 공자께서 자리에 계시고 안회와 증자가 앞과 뒤에 있으리라. 이 위대한 스승님들이 말씀한 것을 가까이 절실하게 귀담아 듣고, 제자들이 묻고 따진 것을 몇번이고 참고하여 자신을 바로 잡으라.

일이 이르면 옹하고 곧 그 배운 것을 실천하여 시험해 보라. 그러면 하늘의 밝은 법령(天理)이 눈부시게 빛날 것이니, 항상 눈은 여기에 두어라.

일에 응함이 끝나고 나면, 나는 곧 이전과 같아져야 하니,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정신을 모으고 생각을 가라 앉히라. 내가 끊임없이 움직이거나 고요할 때 오직 이 마음이 보는 것이나 고요할 때는 이 마음을 보존하고 움직일 때는 이 마음으로 일을 살피서,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지지 않게하라.

글을 읽다가 여가에 툴툴히 자유롭게 노닐면서 정신을 풀어주고 마음(정성)을 쉬게하라.

날이 저물고 사람이 피곤해지면, 어두운 기운이 쉽게 타고 들어오니, 재계하고 가다듬어 마음을 흔들여 깨워라. 밤이 깊어 잠을 잘 때에는 손을 가지런히 하고 발을 모으며, 아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마음이 머무를 곳으로 돌아가리라.

마음을 밤의 차분한 기운(夜氣)으로 길러서 곧으면(貞) 곧 으뜸(元)으로 돌아간다.<sup>28)</sup> 생각을 여기에 두고 또 여기에 두어 늦은 밤까지 노력하라.<sup>29)</sup>

27) '숙흥야매잠'은 남당(南塘) 진무경(陳茂卿)이 저술하여 자신을 경계한 것이다. 金華 王魯齋가 일찍이 台州에 있는 상채서원(上蔡書院)에서 교육을 주관할 때에 오직 이 '夙興夜寐箴'만을 교육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각각 외우게 하고 익혀서 실행하도록 하였다.

28) 하루를 元亨利貞의 순환으로 볼 때 늦은 밤은 貞, 새벽은 元이다. 여기에서는 늦은 밤에 夜氣로 마음을 키워 貞에 이르러야 다음날 새벽에 元으로 돌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29) 「鷄鳴而寐, 思慮漸馳. 盍於其間, 澹以整之. 或省舊愆, 或紬新得, 次第條理, 瞭然默識. 本既立矣, 昧乃興, 盥櫛衣冠, 端坐斂形. 提掇此心, 噉如出日. 嚴肅整齊, 虛明靜一. 乃啓方冊, 對越聖賢, 夫子在坐, 顏曾後先. 聖師所信, 親切敬聽, 弟子問辨, 反

夙興夜寐箴은 이른 새벽 생각이 처음 일어나기 시작할 때, 또 일상의 일과 이미 접촉했을 때,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의 각각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

새벽 생각이 처음 일어나기 시작할 때, 또 일상의 일과 이미 접촉했을 때,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의 각각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마음의 動靜을 꺾고 있는 것이 마음뿐이므로 마음이 고요할 때는 存心 涵養하고, 마음이 움직였을 때는 察識 省察하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재, 尊德性齋銘이다.

朱子는 만년에 尊德性을 강조하였다. 그는 배우는 사람들이 講說에만 몰두하여 涵養하기를 소홀히 하고, 언어와 문자의 협소한 의미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함을 경계하였던 것이다.

「德性を 존중하고 問學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과 文으로써 나를 넓히고 業으로써 나를 단속한다는 이 두 방향에서 공부를 한다면, 언제나 치우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sup>30)</sup>

朱子の 이 말은 尊德性和 道問學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만일 道理상에서 정밀하게 살펴볼 수 없으면, 바로 尊德性의 위에서 修養해야 하고, 만일 德性상에서 부족함이 있으면 모름지기 講學상에 힘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를 병행하면 서로 서로 드러나고 밝혀져서 광대하고 찬란한 경지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sup>31)</sup> (김수칭, 1994 :205 -213)

覆參訂. 事至斯應, 則驗于爲. 明命赫然, 常目在之. 事應既已, 我則如故, 方寸湛然. 凝神息慮, 動靜循環. 惟心是監, 靜存動察, 勿貳勿參. 讀書之餘, 間以遊泳, 發精神, 休養情性. 日暮人倦, 昏氣易乘, 齋莊整齊, 振拔精明. 夜久斯寢, 齊手歛足, 不作思惟, 心身歸宿. 養以夜氣, 貞則復元, 念茲在茲, 日夕乾乾」(陶山全書一, 卷七, 筭)

30) 「朱子曰 尊德性 而道問學, 傳我以文, 約我以禮, 兩邊做工夫, 都不偏」(心經附註, 卷四)

31) 「又曰 若於道理上, 看未精, 便須於尊德性上用功, 若德性上, 有不足, 便須於講學上着力, 二者並行, 庶互相發明, 可到廣大輝光之地」(心經附註, 卷四)

### Ⅲ. 退溪李晁의 敬思想

#### 1. 聖學十圖에 나타난 敬의 意味

退溪에 있어서의 修養論은 行爲論的 차원에서는 그 넘치고 모자람을 절도에 들어 맞게(中) 이끌어 가는 것이며, 知識論的 차원에서는 알지 못함(不知)·배우지 못함(不學)을 앎(知)·배움(學)에로 인도하여 가는 것이며, 人間論的 차원에서는 사사로운 자아(自我)를 버리고 本質的 자아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가도록 하는 것이며, 人性論的 차원에서는 인간의 욕심(人慾)을 버리고 人心이면서 道心이 되는 원래적인 마음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고, 本體論的인 차원에서는 氣를 理에 순응하게 하여 理의 질서를 총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윤천은, 1989:158)

송대의 학자들은 ‘理’를 발견하였지만, 퇴계는 ‘敬’의 새로운 의미를 唱導하였고, 퇴계 이전의 敬에 관한 설명은 퇴계에 이르러서 철저히 정리되고 종합되었다.(정순목, 1986:194)

퇴계의 修養論은 居敬窮理로 말할 수 있지만, ‘敬’字 하나로 집약할 수 있다. 그의 「聖學十圖」를 天道와 人性의 두 근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인간의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敬에 의존하고 있다.(오석원, 1990:196)

퇴계의 대표적 저작은 그가 선조 元年(1568) 12월에 바친 성학십도이다. 성학십도는 퇴계가 만년에 심사숙고하여 綱領을 제시한 퇴계학문의 결정체이며, 그가 體認한 聖學의 大端이자 가장 자세하면서도 개괄적인 總體이다.(이소평, 1995:163)

퇴계가 학문의 이상과 목표로 삼았던 것은 聖人이며, 인간주체 확립의 근거로서 心法을 중시하였고, 구체적 수양방법으로 持敬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聖, 心, 敬이라는 세 개의 고리가 연결되어 기본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오석원, 1990:186)

성학십도에 있어서의 敬의 위치를 퇴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敬은 위와 아래를 다 통한 것이니 공부를 시작하고 그 功效를 거둠에 있어서 모두 항상 여기에 종사하여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朱子

의 말도 그와 같으니 지금 이 十圖에도 모두 敬으로 主를 삼은 것입니다。」<sup>32)</sup>

즉 敬으로부터 학문이 시작되고 敬으로부터 학문이 끝난다는 것이며, 이러한 敬이 聖學十圖 모두를 일관하고 있는 주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퇴계는 聖學十圖의 기본구성을 그 스스로 분석하면서 제1도에서 제5도까지를 ‘天道에 근본하는 것으로서 事業은 人倫을 밝히고 德業에 힘쓰는데 있다.’고 하고, 제6도에서 제10도까지를 ‘心性에 근원하는 것으로서 요령은 日用에 힘쓰고 敬畏를 높이는데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天道와 심성(人道)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모두 인간의 주체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제6도에서 제10도까지를 다시 분석해보면, 제6,7도는 ‘心性情의 구조와 仁의 德’을 論한 心體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비하여, 제8-10도는 ‘敬을 통한 心性의 수양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곧 제6,7도는 심성의 실제 곧 心體의 구성내용에 관한 문제로서 수양을 위한 기반이 되고, 제8-10도는 수양의 실천방법으로서 心體를 실현하는 수양의 과정이 되어, 體用관계를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금장태, 1997:9-10)

퇴계는 敬이 一心의 主宰이며, 萬事의 근본으로, 모든 노력·수양의 중심은 敬을 지니는데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敬은 聖學의 終始인 것이다. 퇴계는 이에 추가하여 敬은 위에서 아래까지 모든 것에 대해 철저히 窮理를 하여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서 이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위에서 아래까지’에서 위라는 것은 성학십도에서 말하자면 제1도와 제2도로서 인간을 포함한 이 세계존재의 이법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륜의 이법을 행위속에서 창조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아래라는 것은 극히 가까이 있는 일상생활의 기본적 행위양식에서 善을 명확히 하고 몸을 성실히 하고 德을 높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교진, 1998:134-135)

敬에 관한 퇴계의 해설은 다양하게 제시된다. 퇴계는 朱子의 說을 인용하여 敬의 내용을 四條目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32) 「敬者 又撤上撤下 著工收效 皆常從事而勿失者也 故朱子之說如彼而今茲十圖皆以敬爲主焉」(退溪全書, 卷一, 聖學十圖, 第四大學圖)

「어떤 사람이 ‘敬의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하고 朱子에게 질문을 한 바 있다. 주자가 말하기를 ‘程子是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일체의 잡념도 없는 경지가 敬이요, 가지런히 정돈되고 엄숙한 경지가 敬인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程子の 제자 謝氏는 ‘항상 분명하게 깨닫는 법’으로 敬을 설명하고 있다. 또 尹氏는 ‘그 마음을 수렴하여 어떠한 사물도 그 마음속에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敬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sup>33)</sup>

朱子는 敬공부의 내용을 程子の 主一無適과 整齊嚴肅, 그의 문인 謝上蔡의 常惺惺法, 尹和靖의 氣心收斂 不容一物로 설명하고 있다. 퇴계도 諸家들의 敬에 대한 견해를 한가지로 받아들여 「한가지 방법을 통하여 들어가면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들어가는 경지도 모두 그 가운데 있다.’<sup>34)</sup>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主一無適이란 마음을 오로지 하나로 하여 흠어지지 않게 하는 主情의 마음의 상태라 할 수 있다. 퇴계에 있어서 敬의 정신은 主一으로 집중, 전념하여 마음을 방만히 하지 않는 자세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敬이란 主一을 말하는 것<sup>35)</sup>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主一은 마음의 전일함을 뜻하는 것으로 主一無適이라고도 한다.(이상은, 1978:249) 퇴계는 이러한 主一無適에 대해 ‘主一의 一은 不二不雜의 一이며 또한 전일의 一은 一이지 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일을 잘하면 곧 誠하게 되는 것이다.’<sup>36)</sup>

敬은 마음이 하나로 되어 흠어지지 않는 상태를 지향하는 공부이며 敬공부가 완성되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로 되면 자연히 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誠은 하늘의 道요, 誠하려는 것은 사람의 道이다. 힘써 誠에 나아가고자 할진대 오직 敬에 用力할 따름이다.’<sup>37)</sup>하였다.

퇴계는 主一無適을 실천하는데 있어 어느 하나에 집착이 되면 마음이 그

33) 「或曰 敬若何以用力耶 朱子曰 程子嘗以主一無敵言之 嘗以整齊嚴肅言之 門人謝氏之說 則有所謂常惺惺法者焉 尹氏之說 則有其心收斂 不容一物者焉云云」(退溪全書, 卷一, 聖學十圖, 第四大學圖)

34) 「若從一方入 三方入處都在這裏」(退溪全書, 卷二, 答金而精)

35) 「敬者何 主一之謂也」(退溪全書, 卷一, 答虛伊齊)

36) 「主一之一 乃不二不雜之一 亦專一之一 非指誠而言 但能一則誠矣」(退溪全書, 卷二, 答金而精)

37) 「誠者天之道 誠之者 人之道 學者之所當勉也 而欲強而進誠 亦惟用力於敬而已」(退溪全書, 卷十, 答虛伊齊)

것에 얽매이게 되어 참다운 敬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퇴계는

「학자들이 고요한 가운데 참으로 存心하여 단정히 앉아 공부하고 動하는 곳에 더욱 힘을 써서 그 일을 만나면 마음이 그 일에 있고 저 일을 만나면 마음이 저 일에 있게 된 후에야 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38)</sup>

라 하였다.

둘째, 整齊嚴肅이란 외모나 마음을 다스려 가지런하고 엄숙하게 한다는 것으로 밖을 제약하여 안을 기르는 것을 뜻한다. 즉 ‘整齊嚴肅하면 곧 마음은 하나가 되며, 마음이 하나가 되면 저절로 非僻之間이 없어진다. 이러한 함양을 오랫동안 지속하면 天理는 자연히 밝게 드러나게 되는 것’<sup>39)</sup>이라고 程子は 이야기하고 있다.

경은 물론 내적 정신의 전일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외적인 규제와 별개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퇴계는 공부를 마음에서 시작하기보다는 몸가짐에서 시작하라고 권하며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外的 整齊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외모를 엄숙하게 지니기를 오래 계속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하나로 되어 나머지 세 가지를 통해 도달되는 경지가 다 그 속에 있다는 것이다. 퇴계는 外를 바르게 함으로써 內를 곧게 한다는 관점에서 外的인 면을 강조하여 敬의 四條目中 整齊嚴肅을 제일단계로 주장하였다.

퇴계의 敬공부에 있어서 整齊嚴肅은 인간의 본래성을 추구하는 도덕적 주체로서의 자아를 확고부동하게 지켜가려는 생활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常惺惺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비록 용모와 태도를 가지런히 단정하게 하고 엄숙히 취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면 이 모두가 허사여서 敬공부가 행해질 수 없다,

敬을 常惺惺法이라고도 한다. 퇴계도 이 常惺惺을 敬공부의 실천 방법으로 삼아 ‘마음이 욕심 때문에 흐려졌을 때 敬을 가지면 그 마음은 곧 惺惺

38) 「學者 靜中 固當存心端坐 而動處 尤當致力 遇這事而心在這事 遇0事然後 可謂敬矣」 (退溪全書, 卷三一, 答禹景善問目)

39) 「只是整齊嚴肅 則心便一 一則自是無非僻之干 此意但涵養久之 則天理自然明」 (二程全書, 卷十五)



하게 된다.<sup>40)</sup>고 하였다.

마음의 수양도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공부를 해 들어가는 것이며, 사물의 理致, 天理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작용해야 하는데, 이 때의 마음이 깨어 있지 않고 昏迷하다면 이치가 나에게 다가올 리 없다. 常惺惺法이 敬공부로서 높이 평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김수정, 1998:158)

자각상태로 마음이 밝아서 잡념이 없고 정신력이 안정되고 精一한 상태가 바로 常惺惺의 상태이다. 유학에 있어서 心은 그 자체가 虛靈한 것이다. 心이 그 본체의 허령함을 잃지 않고 언제나 虛靈洞澈하여 있으면 그것이 곧 常惺惺의 상태인 것이다. 퇴계는 이러한 심의 虛靈性を 理와 氣의 妙合으로 설명한다. 즉 심의 虛함은 심이 理를 갖추고 있는 까닭이며 심의 靈함은 심이 氣를 지닌 까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氣 그 본체는 ‘湛然虛明’하지만 그것은 流行함에 따라 점차로 본래의 湛然虛명한 성질을 잃고 混濁·固着의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心이 常惺惺하려면 氣가 流行함에 본래의 虛명한 本體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이상은, 1973:243-248)

마지막으로 其心收斂不容一物이다.

마음을 수렴하여 一物이라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음을 단속하여 한가지의 잡념도 용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心은 본래 하나로서 形氣와 性命 중에서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人心과 道心으로 나뉘게 된다. 따라서 마음을 한 곳으로 收斂하여 性命을 보존하고 一物이라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敬을 위한 공부가 된다.

敬의 의미를 규정하는 四條目を 살펴보면 主一無適 및 常惺惺, 그리고 其心收斂不容一物 세 조목이 주관 內心을 다스리는 治心の 法이라면 整齊嚴肅은 객관적 외양에 대한 규제이다. 결국 敬의 의미는 內的의미와 外的의미라는 두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朱子는 敬이 動靜을 일관하는 공부라고 생각하였고, 退溪 또한 敬을 有事 즉 心已發로서의 행동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無事 즉 心未發 가운데서도 꼭 지녀야 할 것으로 보았다.(배종호, 1984:7)

40) 「譬如心爲物欲之渾 持之以敬 則心忽惺惺也」(退溪全書, 言行錄, 卷一, 論持敬)

## 2. 敬의 현실적 실천

퇴계는 인간의 욕망을 규제하고 그 마음에 내재해 있는 인간 본연의 마음인 四端의 德을 확충함으로써 마침내 聖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원리를 敬이라 하였다.

퇴계는

「敬의 태도를 유지하면 욕심이 적어지고 사리는 밝아진다. 욕심을 적게 하고 또 적게 하여 아예 없게 하면, 靜할 때에는 處하고 動할 때에는 곧게 나가게 되어 聖인을 배울 수 있다」<sup>41)</sup>

하였다. 또한 ‘마음은 한 몸의 主宰이며, 敬은 한 마음의 주재이다.’<sup>42)</sup>라 하였으며, ‘敬은 萬事의 근본’<sup>43)</sup>이며, ‘敬 한 글자는 聖學의 시작과 끝이 된다.’<sup>44)</sup>하였다. 그리고 마음의 잘못이 고쳐지면 모든 잘못된 행동이 고쳐지기 때문에 ‘敬은 모든 병의 약’<sup>45)</sup>이라 할 것이다.

요컨대 敬은 인간의 모든 일의 시작에서 끝까지 유지되어야만 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이다. 敬만 잘 유지되면 인간의 마음의 主宰性이 유지되므로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이광호, 1993:133)

퇴계에 의해 제시된 敬의 실천에는 먼저 持敬工夫를 들 수 있다.

퇴계는 持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敬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배우는 것이 겸비되고, 움직임과 고요함이 일관되며, 안과 밖이 합치되고, 드러난 것과 숨은 것이 한결같이 道理이다. 이것을 하는 방법은 반드시 삼가고 엄숙하고 고요한 가운데 이 마음을 보존하며,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사이에 이 理를 窮究하여,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경계하고 두려워함이 더욱 엄숙하고 더욱 공경할 것이요, 隱微한 곳과 혼자 있는 곳에서 省察함을 더욱 더 精密하게 할 것입니다.」<sup>46)</sup>

41) 「敬則欲寡而理明 寡之又寡 以至於無 則靜虛動直 而聖可學矣」(退溪全書, 卷一, 聖學十圖, 第一太極圖)

42) 「蓋心者一身之主宰 而敬又一心之主宰也」(退溪全書, 聖學十圖, 第八心學圖)

43) 「敬者 一心之主宰 而萬事之本根也」(退溪全書, 聖學十圖, 第四大學圖)

44) 「敬之一字 聖學之所以成始 而成終者也」(退溪全書, 聖學十圖, 第三小學圖)

45) 「敬是百病之藥」(退溪全書, 卷二, 答金而精)

46) 「持敬者 又所以兼思學 貫動靜 合內外 一顯微之道也」(退溪全書, 卷一, 進聖學十圖節)

이것은 정신이 集中, 통일된 상태요, 모든 起居動作을 가벼이 함이 없이 만사에 조심하고 삼가는 태도니, 일부러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心身이 숙연하여지고 표리가 하나로 되는 경지인 것이다.(박종홍, 1986:157 참조)

다음에서는 持敬의 방법인 整齊嚴肅실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퇴계는 ‘故人에게 들은 즉 형체도 없고 형상도 없는 心을 가지고자 하면 반드시 이를 근거로해서 지킬 수 있는 곳으로부터 공부를 더 해 나간다고 하였으니 顏子の 四勿<sup>47)</sup>, 曾子の 三貴<sup>48)</sup>같은 것이다.’<sup>49)</sup>라고 하여, 整齊嚴肅의 구체적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三省<sup>50)</sup>, 三貴, 四勿과 같이 일상생활상 法度로서 외양을 규제하는 것이야말로 心中之理를 存養, 省察하는 持敬의 첫째 방법인 것이며, 心法을 存養하는 持敬의 要諦라고 보았다.(장운수, 1996:81-82)

「敬을 지니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整齊嚴肅하라. 위엄이 있고 조심하라. 용모를 바르게 하라. 思慮를 바로 잡아 가지런히 하라. 衣冠을 바로 하라. 보는 시선을 존귀하게 하라 등의 몇 마디 말을 깊이 숙고하면서 실제로 공부하면 所謂 마음을 끈게 한다든가 主一하는 일은 자연히 되어지는 것이므로 안배를 기다리지 않고서도 심신이 숙연해져서 표리가 한결같이 될 것이다.」<sup>51)</sup>

이상에서 퇴계는 敬을 지니는 방법은 整齊嚴肅의 실천이 근본이 되어야 하며, 그 실천은 일상생활에서의 언어, 사고, 동작 등 평범한 생활태도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47) 四勿 : 禮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말라는 가르침.(論語: 顏淵)

48) 三貴 : 군자가 지켜야 할 귀중한 세 가지의 道로서 첫째, 행동거지에 있어서는 사납거나 거만함을 멀리해야 하고 둘째, 얼굴빛을 바르게 함에 있어서는 믿음직하게 해야하고 셋째, 말을 함에 있어서는 비루하거나 어긋남을 멀리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論語: 泰伯)

49) 「聞之古人欲存無形影之心 必自其有形影可據 守處加工 顏曾之四勿三貴是也」(退溪全書, 卷二九, 答金而精)

50) 三省 : 날마다 살펴야 할 세 가지로서 첫째, 다른 사람을 위하여 꾀함이 충성치 못하였는가 둘째, 벗과 사귀는데 믿음이 없었는가 셋째, 배운 것을 익히지 못하였는가이다. (論語: 學而)

51) 「但熟味整齊嚴肅 嚴威嚴格 動容貌整 正思慮 正衣冠 尊瞻視等 數語而實加工焉 則所謂直內 所謂主一自然 不待安排 而身心肅然 表裏如一矣」(退溪全書, 卷二九, 答金而精)

퇴계의 敬論은 성리학의 전통에 입각하고 있지만 특히 整齊嚴肅을 강조하여 평이한 생활 法度의 실천을 통한 持敬을 중시한 점은 퇴계 敬論의 특징이다.(장윤수, 1996:82)

다음으로 퇴계의 敬이란 存養省察로 요약될 수 있다.

存養省察은 원래 중국 성리학에 있어서 存養공부는 居敬, 성찰공부는 窮理로 되어 이원적인 수양론이 성립되었는데, 퇴계에 있어서는 성찰공부가 心의 본체(仁義禮智의 性)를 온전히 하기 위하여 體를 실천하고 四端을 확충한다고 하는 실천적인 수양공부로 되어 居敬 속에 수용됨으로써 居敬을 중심으로 한 一元的인 수양론이 수립되었다.(이기동, 1987:43)

存養의 뜻은 그 語源이 孟子가 ‘그 마음을 보존해서 그 性을 기르는 것은 하늘을 섬기는 까닭이다’<sup>52)</sup>에서 비롯된 말이다. 퇴계는 이러한 存養이 본심을 상실하지 않고 그 善性을 기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항상 惺惺하게 自覺하는 상태라고 제시한다.

이는 存心하면 養性이 된다는 것이니 存心養性을 말할 때 存心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다. 퇴계는 心學的인 면을 강조해서 敬이 곧 存心之要가 된다고 하여 心에 중점을 두어 말하고 있다. 결국 心은 하나인데 잡아서 보존하면 의리가 밝아지고 道心에 이르나, 버려서 망하면 物欲이 방자하니 人心에 이른다고 한다.(김태영, 1988:79)

성찰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찰이란 마음이 이미 發한 이후에 나타나는 바가 天理인가 아니면 人欲인가에 대해서 주의깊게 살피는 것을 말한다. 즉 是非, 善惡, 正邪 등과 같이 상반되는 두 가지 사항을 준별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찰은 잘 생각한다는 말이지만 사려와는 다르며 내 마음을 돌이켜 보고 스스로 그 보이지 않는 곳에 戒愼하고 그 들리지 않는 곳에 恐懼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찰은 행위의 결과를 보고 돌이켜 心術의 善惡을 반성하는 것(한명수, 1973:45)으로 퇴계는 自省錄에서 正道와 邪說, 義와 利, 出處와 去就, 本源과 心地 등의 문제를 省察의 주 대상으로 삼았다.(신귀현, 1985: 875-886)

52) 「存其心養其性所以事天也」(孟子, 盡心章句上)

결국 퇴계에 있어 存養省察의 의미는 存本心하고 養本性하는 것으로 인간이 행동의 실천에 앞서서 먼저 本心을 유지하고 본성을 함양할 것을 강조하고 행동을 실천하고 나서는 바로 이 본심이 그대로 發露되었는가를 反省體察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이경식, 1991:14)

「배우는 자는 진실로 持敬에 한결같이 天理와 人欲에 어둡지 아니하고 더욱 더 삼감함을 다하여 未發時에는 天理를 存養하고 已發時에는 기미를 성찰하는 습성이 익숙해야 할 것이다.」<sup>53)</sup>

敬은 動靜의 어느 한 곳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動靜을 通貫하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이 發하기 전에는 主敬하여 存養에 힘쓰고, 마음이 發한 후에도 主敬하여 省察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敬의 修養法에 있어서 存養省察 이상은 없다고 보는 것이며, 따라서 存養省察의 공부는 動靜을 一貫해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敬은 학문의 始終을 이루게 되어 體用과 動靜을 관통하게 되는 것이다.

## IV. 南冥 曹植의 敬思想

### 1. 內明者敬 外斷者義

南冥 曹植은 退溪 李晁과 함께 조선중기 유학을 대표하는 교육사상가로서 개인의 수양을 위한 학문을 하였지만 동시에 후학을 지도하고 일반 민중을 교화하였다. 그리고 그는 영남학파의 지도자 위치에 성리학의 보편적인 학문을 연구하여 많은 제자를 배출한 지방 사림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며, 학문함에 있어 이론적인 측면을 배격하고 실천적 측면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남명의 사상은 한 마디로 정의내리기는 어렵지만 敬과 義사상에 바탕을 둔 선비정신의 함양이라 할 수 있다. 즉 그 핵심을 敬·義 두 자로 집약할 수 있다.

그는 평생토록 ‘居敬集義’를 佩服하고 ‘居敬行實’과 ‘反躬體驗’을 선비의

53) 「學者誠能一於持敬 不昧理欲 尤致謹於此 未發而存養之功深 已發而省察之習熟」(退溪全書, 卷一, 進聖學十圖節 第六心統性情圖說)

本務로 삼아 교육하였다.(최영성, 1996:32)

敬과 義는 體用의 관계에 있다. 즉 경은 한 몸의 주체가 되며 의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경과 의에 대한 사상은 하나의 생활철학이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남명이 일생동안 유학을 배우면서 터득한 聖學의 요결이라고 할 수 있는 敬과 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남명 교육사상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성리학의 敬과 義였다. 敬은 인간의 마음을 올바르게 주재하는 것이고, 義는 敬이 주재한 올바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남명은 敬과 義를 실천하기 위하여 좌우 兩 벽과 器物에 內明者敬과 外斷者義라고 새겨 놓고 마음이 게을러지는 것을 경계하여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으며, 제자들에게도 실천을 권장하였다.

敬에는 敬虔, 專念, 恭敬, 慎重의 뜻이 있고, 義에는 正義, 威儀, 마땅함 등의 뜻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의미는 산만한 것이어서 남명의 '內明者敬, 外斷者義'가 함축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敬以直內, 義以方外(敬內義外)」(周易, 文言傳:공경으로 속마음을 바로 잡고 의로 겉행동을 바르게 한다.)

「敬只是持己之道, 義便知有是有非」(程頤, 語錄:공경함은 자신을 지탱하는 道理에 불가하나, 정의로움에 이르러야 옳고 그름을 알게 된다)

따라서 敬은 학문할때는 '전념'의 뜻이지만 대인관계에서는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남에 대한 존경 즉 인권존중 또는 인권사상이 되며, 義는 행동면에서 시비를 가리어 정의를 행함 즉 불의타과행위가 된다.(남명학연구원, 1988:262-263)

남명은 경의 교육으로 자각하는 방법을 체득하였는데 군자는 경으로서 안을 곧게 하고 의로써 밖을 바르게 하기 위해 우선 삼가는 태도가 요구된다.

敬은 敬 자체의 중요성보다 이것이 확립된 후에야 얻을 수 있는 窮理 또는 행동 실천면의 효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敬은 나를 지키는 방법이며 義는 시비를 가리는 것이다. 그리고 理를 쫓아 행동하면 이것이 義다. 즉 敬만 지

키고 集義를 모르면 理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하여 敬상태에서 얻어지는 理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한 바를 실천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남경의 敬사상은 다른 성리학자들과는 달리 敬과 義의 관련성을 함께 밝혀나갔다.

敬은 爲己之學으로서 유가사상의 기본이다. 남명은 爲己에 대하여 정·주자학설을 따랐는데, 敬은 聖學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였다. 즉, 敬이 사람 마음안에서 자리잡으므로 사사의 욕심이 싹트지 않고 밖으로부터 의혹도 막을 수 있다고 하여 敬은 곧 聖學이고 聖學은 爲己之學의 실천 전제가 된다는 것이다.

경공부는 처음 시작하는 초학자에서부터 성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결같이 敬을 주로 하는 공부가 되어야 하며 敬에 주력하지 않으면 학문 자체도 거짓이라고 할만큼 敬을 중요시했던 것이다.

남명의 학문적 경향은 소학과 대학을 중심으로 한 실천적 경전류에서 老莊류의 초월적 성격을 갖는 경전을 거쳐 결국 유가적 현실관을 담고 있는 性理大全과 心經등에 이르게 된다. 특히 心經은 남명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心經의 요체인 敬의 실천을 과업으로 삼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그는 敬이란 整齊嚴肅하여 항상 마음을 깨우쳐서 어둡지 않게 하는 것, 한 마음의 주인이 되어 모든 일에 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남명은 敬에 대한 실천으로 主一無敵, 整齊嚴肅, 其心收斂, 常惺惺法을 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외적 규제인 정제엄숙을 통해 방만한 그 마음을 기심수렴하고 또 한결같은 마음 주일무적으로 정신을 집중하여 집착, 집착하지 않음이 상성성법의 각성의 상태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고 실천한 것이다.

명종 21년(1566)에 임금이 학문하는 방법에 대하여 묻자 남명이 답하기를

『임금의 학문은 바로 出治의 근본이며 학문에 있어서 귀중함을 자기의 마음 속에 얻어야 천하의 이치를 궁구하고 사물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 만기를 총괄하여 손에 쥘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문의 요핵은 敬에 있을 뿐입니다.』<sup>54)</sup>

54) 「又問爲學之方對曰 人主之學出治之源 而學貴於心得 得於伽以窮天下之理可以應事物之變 而總攬萬機自無事矣 其要只在敬而已」(南冥先生 編年)

라고 하면서 ‘敬’으로서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道로 삼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心內에 敬을 보존하게 되면 천리가 저절로 밝아 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남명은 학자에게 모름지기 앞으로 敬以直內하여 그 뜻을 함양하고 直內가 그 근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남명의 ‘義’ 이념은 敬으로서 자기 자신을 수양한 바를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실천의지로써 자기실천을 위해서는 우선 주체적인 자기의 확립이 필요하다.

義도 원시 유교에서부터 중시되던 개념이다. 「논어」에서는 이것을 군자의 처신과 연관하여 실천해야 할 대상이고 시시비비와 공사를 가리는 절대 보편 타당한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성리학에서의 義理精神은 공자의 春秋大義精神과 맹자의 舍生取義精神에서 찾는다.(배종호, 1985:108)

義에 관한 經學的原理는 성리학의 義思想에 周禮, 六經(知, 仁, 誠, 義, 忠, 和)의 하나로서 敬과 더불어 성리학의 중요한 덕목으로 孔子이래 經學論의 이념이 되어 왔다.

義는 원래 坤卦六二爻辭 「直方大不習尤不利(周易坤卦之義)」에 보이는 ‘直方’의 意味를 부연한 것이다. ‘直’이란 마음을 곧게 하는 것인데, 이는 ‘敬’을 통해야 가능하며 ‘方’이란 外物과의 교섭과정에서 일을 반듯하게 처리하는 것인데, 이는 ‘義’를 기준으로 해야 가능하다는 뜻이다. 즉 「周易」坤卦의 ‘義以方外’가 바로 그것이다.(이상필, 1997:129)

이렇게 ‘義’를 강조하고 실천한 측면이 당시의 조선시대에 있어서의 다른 학자들과 구별되는 점이라 하겠다.

## 2. 實用之學으로서의 敬과 義

남명사상의 중심되는 특징은 敬과 義를 바탕으로 朱子의 성리학을 현실적으로 실천한데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한 그의 文體와 爲學과 行身 및 현실대응 자세는 퇴계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이수건, 1980:218)

남명의 경사상은 爲己之學이며 실천을 중히 여기는 實用之學이라고 볼 수



있다.

남명의 敬에 대한 교육이념은 경·의 설을 수기지학의 입장에서 행위적인 대상 학문으로 체득하고 실천하는데 치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경사상은 송대의 유학과 동일하며 교육 방법면에서 이황이나 이이보다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力行하였다. 난해한 성리학의 체계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소학」 「대학」 등의 교과 지도에 위학차서를 풀이하였다.

남명에 있어 특이한 점은 경을 간직하고 깨우치기 위해 敬箴, 惺惺子 등의 학습도구를 창안하여 스스로 체득하여 경의 태도를 길렀다는 점이다.

이러한 학풍을 기저로 하여 남명학파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게 된 것은 義를 중하게 여겨 임란이후 의병활동에 대거 참여한데서 찾을 수 있으며, 그의 정신은 개화기의 의병활동까지 이어졌다. 특히 철종 연간에 진주를 중심으로 三政의 문란에 격분하여 일어난 민란 또한 남명정신의 영향이었다. 이는 결국 남명의 학문적 특성이 관념적이기 보다는 실천적 실용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명은 선비의 고결한 기상은 항상 사악함을 멀리하여 성을 보존하는 담백한 마음가짐에 경의로 집약하여 의에 의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여겼으며, 이와 같은 敬·義는 생활철학이었다.

義와 관련해서 남명은 현실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남명은 「戊辰封事」에서 ‘窮其理將以致用也’라 하여 窮理하는 목적이 致用 즉 현실세계에서의 쓰임을 극진히 하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敬으로 마음을 밝히는 목적이 현실에서의 處事接物時에 義를 결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남명은 經世濟民의 實用之學을 전수하면서 엄정한 出處觀으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비가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고 하여 세상일을 남의 일처럼 방관해서는 안된다. 학자가 世務에 통하지 않으면 方外之士와 다를게 없다. 天下事란 한 집안의 일과 같아서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하겠지하고 내 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獨善其身’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은 천하 속에 살면서 天下事의 변화에 잘 대처하는 일이다.』<sup>55)</sup>

55) 「學者不可不通世務 天下事比如一家 比我爲則彼爲 非甲爲則乙爲 獨處而靜思非

라 하여 實用之學을 강조하였다.

남명학과의 학문세계는 중국 고대의 유학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정신세계, 특히 선비 정신은 남명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실제로 그러한 모습이 은일 지사의 교학자로서 나타났으며, 또한 義에 삶 의 실천적 의미를 둔 임진 의병에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남명에게 있어서 '義'는 '敬'과 대등하다. 義에 대한 실천이 없으면 '敬'에 의한 정신수양 그 자체로는 儒家的 의미가 없게 된다. 즉 '敬'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실천을 이룩하게 하는 것이 義인데 남명이 이처럼 義를 敬과 대등하게 인식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실천요소와 실천의지가 달리 표명될 수 있었다.

## V. 大巡思想의 敬思想

### 1. 修養論으로서의 敬과 敬天

修養論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敬의 실천이다. 敬은 궁극적 존재자가 완전하고 절대적인 존재인 반면, 인간은 불완전한 미완의 존재로서 인간이라는 자각하에서 제시되는 것이다.

「대순진리회요람」에서 敬은 「敬은 心身의 움직임을 받아 一身上 예의에 알맞게 행하여 나아가는 것을 敬이라 한다」고 하였으며, 「대순지침」은 至誠奉祝에 변함이 없고 양면이 없어야 敬인 것이며, 동시에 예의 범절을 갖추어 처신 처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敬이란 경건하고 황공한 마음을 이르는 것으로 이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상제를 모시고 천지의 신명을 모셔야 하는 것이다. 또한 敬은 예의를 갖추는데 있어 그 근본이 됨을 이야기 한 것이다. 결국 敬이란 上帝와 神앞에서의 엄숙한 자세를 취함과 함께 畏敬의 상태로 의미가 확대된다. 이 때의 畏敬은 단순히 두려워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다다를 수 없는 상황으로의 초월성을 견지한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다.

典經의 구절을 통하여 그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덕찬이 상제를 대함이 항상 거만하나 상제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도리어 덕찬을 우대하시더니 하루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공사를 행하실 때 크게 우뢰와 번개를 발하니 덕찬이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피하려 하니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네가 죄 없거늘 어찌 두려워 하느냐」 덕찬이 더욱 황겁하여 벌벌 떨고 땀을 흘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더니 이후에는 상제를 천신과 같이 공경하고 받들었도다.」 (전경, 교운 1/23:164)

「김광찬은 상제를 모시고 김성화가 있는 고을 임파군(臨陂郡) 둔리(屯里)에 이르러 며칠 동안 머물렀도다. 상제께서 죽게 된 성화의 이웃 사람을 제생하셨느니라. 상제께서 환자를 만나 그 병은 그대로 치료하기 어려우니 함열(咸悅) 승림사(崇林寺) 노승을 조문하고 돌아오게 하셨도다. 환자는 중병의 몸을 이끌고 그곳을 돌아오므로 사경에서 벗어났도다. 그는 이튿날 다시 승림사에 찾아가니 노승이 죽었는지라. 조문하고 돌아오면서도 상제 말씀에 위력을 느끼고 두려워하였도다.」 (전경, 제생15:296-297)

「어느날 상제께서 식사시간이 지나서 최 창조의 집에 이르셨도다. 그의 아내는 상제께서 드나드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노라. 이날도 밥상 차리기를 싫어하는 지라. 상제께서 창조에게 가라사대 「도가에서는 반드시 아내의 마음을 잘 돌려 모든 일에 어긋남이 없게 하고 순종하여야 복되 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아내가 문밖에서 엿듣고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속 마음을 보신 듯이 살피심에 놀라 마음을 바로잡으니라.」 (전경, 행록4/7:57-58)

위의 구절이 畏敬에 대한 구절이 되겠다. 즉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천지변화를 자유자재로 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상제의 권능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며,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는 즉 생사여탈 권을 가진 상제의 권능에 대한 두려움과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는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보시는 상제의 권능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다음의 구절을 통하여

「김명칠(金明七)은 태인 백암리에 사는 종도인데 산비탈에 땅을 개간하여 거름을 주고 담배를 심어 가꾸었도다. 하루는 번개가 치고 비가 세차게 퍼붓느니라. 비탈진 산전에 거름을 준 후라 역수가 내리면 거름은 물론 발두둑까지 사태가 나는 것이 상례이기에 명칠이 가슴을 치며 “내 농사는 이것 뿐인데 이 역수로 버리게 되었으니 어찌 살라”고 울음을 터뜨렸도다. 상제께서 공홀이 여겨 “내가 수재를 면케 하리니 근심 걱정 하지 말지어다”고 이르시니 내리던 비가 개는지라. 명칠이 산전에 뛰어

올라가 보니 다른 사람의 발은 모두 사태가 났으나 자기 발만은 조금도 피해가 없었도다. 명철은 새삼스럽게 상제를 공경하는 마음을 게을리 하지 않았느니라.» (전경, 권지 2/16:281)

「상제께서 광구 천하하심은 김일부의 꿈에 나타났으니 그는 상제와 함께 옥경에 올라가 요운전에서 원신(元神)이 상제와 함께 광구 천하의 일을 의논 하는 것을 알고 상제를 공경하여야 함을 깨달았도다.» (전경, 예시 3/312)

이는 상제의 권능에 대하여 진정으로 황송함을 느끼며, 그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지극한 공경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지극히 경건한 마음으로 상제를 모셔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敬의 마음은 대상물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러한 마음은 상제님에 대한 외경의 마음으로 전이되어 간다. 따라서 이러한 외경의 마음을 자각하고 느끼지 못하면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인간은 스스로의 교만을 자초하여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 뿐이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된다. 이는 결국 敬의 마음됨을 견지한 후에야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인바, 敬의 자세는 邪됨이 없이 항상 명덕(明德)을 수행하고 재덕(才德)을 계발하여 지선(至善)에 이르도록 힘써 나가야 한다. 이것이 敬天으로 이어지는 한 방안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敬天의 자세는 상제께서 항상 인간세계를 굽어살피고 있음과 천지신명의 보살핌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데 있다.<sup>56)</sup>

이와같은 敬天의 자세로서 생활에 임하는 자는 당연히 타인에 대하여도 항상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자세를 견지하게 된다.

敬天은 상제님을 영구히 모시고 잊지 않음에 기초를 두는 것으로 상제님을 받드는 것에서 시작하며, 一心을 갖기 위한 한 방법이며, 행동으로 표현하는 禮義이다.

動於禮者靜於禮曰道理 靜於無禮則曰無道理(전경, 교운1/6:153, 동함에 예로서 하고 정함에 예로서 하는 것을 일러 도리라 하며 정함에 예가 없음을 도리가 없는 것이라 이른다.)라 하여 動靜에 따른 禮를 말하고 있다.

56) 「크고 작은 일을 천지의 귀와 신이 살피시니라(大大細細 天地鬼神垂察)」하셨으니, 도인들은 명심하여 암실기심(暗室欺心)하지 말아야 한다.» (대순지침, p.28)

또한 “처세함에 있어서 온유를 귀중히 하고, 억셈과 강함은 화의 바탕이 되니, 말함에 있어서 언제나 더듬거리를 바라고, 일함에 있어서 의당히 어리석음과 같게 하라.(處世柔爲貴 剛強是禍基 發言常欲訥 臨事當如癡)”라 하셨으니, 수행에 어긋남이 없도록 힘쓰라.(대순지침, p.28)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일이 내심의 소정(所定)에 따라 몸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敬은 몸가짐으로 표출되는 행동거지를 다스린다 할 것이다.

「과오를 경계하기 위하여 옛부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自欺自棄)이요, 마음을 속이는 것은 신을 속임이다.(心欺神棄).”고 하였으니 신을 속이는 것은 곧 하늘을 속임이 되는 것이니 어느 곳에 용납되겠는가 깊이 생각하라.」(대순지침, p.42)

라 하셨다.

이는 敬天이라는 개념이 신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하늘(天)이 모든 신격을 대변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진다. 따라서 도인들에게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신명의 수찰이 있음을 상기시켜서 속임과 거짓이 없는 도인의 본분을 바로 지켜야 함을 말씀하신 것으로써 마음으로 닦고 몸으로 직접 행하여서 心身이 일치가 되도록 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숭선수범하는 도인으로서 사회의 모범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 2. 敬의 實踐方案과 修道

대순지침에 「수도는 인륜(人倫)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일」(대순지침, p.37)이므로 「상제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 언행과 처사가 일치되게 생활화하여 세립미진(細入微塵)되고, 마음이 무욕청정(無慾淸淨)이 되었을 때 도통진경에 이르니라」(대순지침, p.39)고 하고 있으며, 「도인들은 항상 어디서나 신명의 수찰이 있음을 명심하고 속임과 거짓이 없이 도인의 본분을 바로 지켜야 한다」(대순지침, p.39)를 통하여 어디서나 暗室欺心하는 마음 없이 수도에 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윤기봉, 1999:152)

앞서 하늘(天)이 모든 신격을 대변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상제님을 비롯한 신명의 수찰이 있음을 자각하여 도인의 본분을 바로 지켜야 하며, 대순진리를 심수덕행(心修德行)하고 정심입의(正心立義)하여 문달(聞達)을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의 제 규정을 엄수하지 못하고 사된 방법으로 수도를 행하게 되면 정기(正氣)는 물러가고 사기(邪氣)가 선동하여 허령(虛靈)이 되는 것이다. 「수도자가 믿음이 부실하면 결과적으로 난법난도자가 된다.」(대순지침, p.53)<sup>57)</sup>고 하였다.

‘허령은 사람이 보기에 곧 광증(狂症)이므로 “허가 내리면 진을 받지 못한다”하셨으니 매사를 경홀히 생각 말고 일상 자신을 반성하여야 한다.(대순지침, p.40)’ 하신 것을 명심하여 수도하는 데 지침을 삼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는 심안신태(心安身泰)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이다.

전경에 “사람의 마음은 신의 중요한 용사기관이므로 신이 출입하고 왕래하는 길이라.(心也者 鬼神之樞機也 門戶也 道路也).”하셨으니 마음의 발로(發露)에 사심(邪心)을 버리고 예법에 합당케 행하는 것이 안심이다.(대순지침, p.48-49) 마음은 일신을 주관하여 만기를 통솔 이용한다. 따라서 일거일동을 道理에 합당케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도인은 부당한 언사나 처사로 행동하여 덕화손상을 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며, 말을 꾸며서 만들어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자존자만은 덕화를 손상케하고 자신까지 망치는 적이 됨을 명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동은 마음의 자취이며, 말은 마음의 소리이기 때문이다.

앞서에서 본 바와 같이 경을 논의함에 있어서 경천을 이야기 하여야 했으며, 경천은 또한 수도와 함께 논의해야 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57)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업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는 힘쓸지어다」(예시30절)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극대운(無極大運)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착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하라」(예시17)

따라서 여기에서는 敬의 실천 방안으로서의 경천수도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대순지침에

지성봉축(至誠奉祝)에 변함이 없고 양면이 없어야 경이라 하는 것이다.

경은 예의범절을 갖추어 처신 처세하는 것이다.

성은 기심(欺心)이 없어야 하며, 경은 예절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며, 믿음은 의심을 품지 않는 것이다. (대순지침, p.54)

라 하여 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敬의 마음을 지니게 되면 도덕을 준수하고 지켜나가며 이를 숭상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天이 곧 道이므로 天에 대한 畏敬은 자연히 道德을 준수하는 것으로서 나타난다. 도덕이 있으므로 인간사회에는 倫理가 존재한다. 인간관계에서는 주로 人倫이라고 하고 이러한 인륜을 지켜나가려는 그 마음이 곧 敬이다. 인륜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윤리는 그 이치가 있다는 말이다. 이치는 곧 道이고 道가 곧 道德이다. 그리하여 敬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이것을 가려선택함으로써 道를 넓히고 大業을 이룰 수 있다.(정대진, 1999:17)

그렇다면 敬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가.

첫째, 修道論的 측면에서의 一心을 들 수 있다.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말했으나 맡겨 줄 곳이 없어 한이로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일심을 가진 자에게는 지체없이 베풀어 주리라.」 (전경, 교법2/4:234)

이는 일의 성사여부가 인간의 마음에 달려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이는 인간의 외적으로 표현되는 의지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심적 의지의 분산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다음의 구절을 통하여 인지하게 된다.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 마음만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던지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할 것이다. 안 되리라는 생각은 품지말라」(전경, 교법2/5:234)

우리가 道를 닦아 나가는데 있어서 그리고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要求되는 것이 일심이다. 「한 몸으로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그 몸이 찢어지리니 주의하라」(권지1-19) 하셨다. 일심이란 말의 뜻은 한 마음, 통일된 마음,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 본연의 청정한 마음 등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몸과 마음의 평안한 상태, 그리고 일심된 상태는 결국 수도의 궁극적 경지를 이루게 되는 초석이 되는 것이다.

둘째, 修養論的 측면에서의 禮法을 들 수 있다.

「부귀한 자는 자만 자족하여 그 명리를 돌우기에 마음을 쏟아 탄 생각을 머금지 아니하니. 어느 겨를에 나에게 생각이 미치리오. 오직 빈궁한 자라야 제 신세를 제가 생각하여 도성 덕림을 하루 속히 기다리며 운수가 조아들 때 마다 나를 생각하리니 그들이 내 사람이니라.」  
(전경, 교법2/8:235)

이는 인간 자신이 인간 스스로의 내면에 내재하고 있는 도덕적 본성이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 현실적인 삶의 조건이 충족됨으로써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 삶의 근본적인 목적성을 망각,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부조리를 경고한 것이다.

인간은 눈 앞의 감각적인 현실에 완전히 노출되어있다. 그럼으로써 인간은 곧이어 도래할 위난보다는 현실을 즐기며, 그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것이다.

敬天한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그 내면의 도덕적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 항상 깨어있게 되며, 禮法에 의거한 생활을 통해 궁극적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셋째, 德을 닦고 사람을 경위에 맞게 올바르게 대접하는 것이다.<sup>58)</sup> 자신

58) 「吉星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때는 해원시대이므로 덕을 닦고 사람을 올바르게 대우하라」(전경, 교법2/20:237)

cf) 「자리를 탐내지 말며 편벽된 처사를 삼가고 덕 닦기를 힘쓰고 마음을 올바



이 修德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남에게 바른 언행과 처사를 하게 됨으로써 원  
을 짓지 않게 되며, 또한 과거의 실수로 척을 지은 사람에게 그것을 풀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것이다. 또한 修德을 통하여 외적인 환경에 근거한 차별,  
불평등의 인간관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인간관계상을 정립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훈회와 수칙을 마음에 새기고 준수하는 것이다.(윤기봉,  
1999:157-163참조)

「좋은 꽃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吉化開吉實)」(행록5-38)는 상제님 말씀  
처럼 내 자신을 맑고 투명하게 닦아 유리알처럼 만들었는가, 그리고 얼마만  
큼 포덕사업을 창성시켜 많은 상제님의 일꾼들을 만들어 놓았느냐에 따라  
좋은 열매(吉實), 즉 큰 운수가 열리는 것이다.

수도는 논리가 아니라 정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는 곧 정성된 마음  
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결국 대순진리를 신앙하는 수도인들에게 있어서 요구  
되는 것은 여합부절인 상제님의 말씀을 일심으로 心修奉行 해야 하는 것이  
다.<sup>59)</sup>

완전한 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자신의 개발과 혁신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훈회와 수칙을 수도함에 근간으로 삼아 이를 바탕으로 언행을 실천  
하며 신조인 사강령(四綱領)과 삼요체(三要諦)의 의미를 자각하여 무도병에  
빠진 선천의 세상을 世有忠 世有孝 世有烈的 윤리와 도덕이 삶의 근간을 이  
루는 세상으로 전환시켜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 VI. 結論

이상에서 敬을 철학적 체계로 집대성한 朱子の 敬사상과 유교의 수양론으  
로서의 새로운 지평을 연 敬사상을 수용, 체계화하고 발전시킨 退溪의 敬사  
상 그리고 실용지학으로서의 敬사상으로 실천을 중시한 南冥의 敬사상을 논

르게 가지라. 신명들이 자리를 정하여 앉히리라.」(전경; 교법1/29:226)

59) 「誠·敬·信 三法言으로 修道의 要諦로 삼고 安心·安身 二律令으로 修行의 訓典을 삼아 人間 本來의 淸淨한 本質로 還元토록 修心軟性하고 洗氣軟質하여 大巡眞理를 勉而修之 誠之又誠하여 道卽我 我卽道の 境地를 正覺하고 일단 豁然 貫通하면 三界를 透明하고 森羅萬象의 曲盡理解에 無所不能하나니 이것이 靈通 이고 道通인 것이다」 大巡眞理會 趣旨文中

의하였으며, 이러한 유학의 敬이념을 기저로 하여 대순사상에서의 수양론으로 敬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주자와 퇴계 그리고 남명이 주장한 敬사상과 대순사상에서 수양론의 한 요체로서 제시한 敬사상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것으로서 결론에 가름하고자 한다.

먼저 朱子の 敬사상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朱子에게 있어서 학문한다는 것은 理(性)을 잘 보존하고, 인욕을 막아보자는 것으로서 이것을 敬공부라고 한다. 또한 未發時에는 도덕적 본성(性)을 원래 그대로 體認 涵養하고, 已發時에는 감정이 항상 中和常態에 이르도록 察識 省察하는 수양방법을 敬공부라 하였던 바, 心을 未發(발동하기 전)心과 已發(발동한 이후)心으로 나누어서 未發心을 性으로 已發心을 情으로 분류한 것은 이를 體와 用의 관계로 파악한 것이다.

未發時에 體認·存養하는 것은 敬공부의 本體(體)이고, 已發時에 察識·省察하는 것은 敬의 作用(用)이 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수양공부로 인하여 存養 涵養과 窮理 省察이 敬에 의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다.

朱子는 敬의 體用관계를 敬以直內와 義以方外로 설명하였다. 敬以直內란 敬공부를 통하여 天理가 자기에게 본래적으로 내재해 있음을 體認해 가지고, 涵養 精進하는 가운데 도덕적 주체성을 확립해 가는 敬공부이며, 이것이 외적인 태도, 즉 용모와 언행과 바로 연관되어 있는데, 이때에 義以方外해야 한다는 것이다. 敬이 자기를 세우는 근본이라면 義는 일에 처하여 단호하고도 방정하게 그 마땅함을 얻어 처리하는 것이다.

朱子는 敬以直內와 義以方外로서 학문의 요체로 삼은 것이다. 宋代에 와서 새롭게 형성된 新儒學的 修養論인 朱子の 敬思想이란 우리에게 부여된 도덕적 본성의 이치를 體認하고 涵養하여 감정의 발동이 이 本性의 아치에 따르도록 察識하고 省察하는 일이다. 이것은 곧 개인의 도덕적 人格 修養을 의미하며, 항상 경건하고 진지하게 일을 처리하고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는 마음과 검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다음으로 退溪의 敬사상에 대하여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敬으로서 대표되는 퇴계에 있어서 敬이란 天理인 본연의 性을 회복하는

통로로서, 지극히 敬하면 성인의 경지에 다다른다고 하였다.

퇴계에 있어서 敬은 인간이 心身修養을 力行하여 善性에 도달할 수 있는 수양적 가치로서, 未發存養과 已發省察을 모두 관통하는 것이다.

敬이란 학습(窮理)과 행위(力行·居敬)를 포괄한 개념으로 敬을 통해서만 仁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자각적 노력에 의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는 存養과 省察을 통해 점진적인 자기의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는 眞積力久를 강조하였다. 즉 한 마음을 주재하는 敬의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마음은 조절될 수 있는 것으로서, 敬은 한마디로 마음을 제어하는 마음공부인 바 마음의 집중, 통일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持敬공부는 인간성회복을 위한 실천원리로서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남명은 敬과 義를 교육사상의 핵심으로 삼았으며, 평생 '居敬集義'를 佩服하고 '居敬行實'과 '反躬體驗'을 선비의 본분으로 삼았다. 남명은 敬과 義의 실천을 위하여 좌우 양벽과 기물에 '內明者敬', '外斷者義'라고 새겨놓은 뒤 마음이 게을러지는 것을 평생토록 경계하였으며, 제자들에게도 실천을 권고하였다.

남명에 있어서 敬은 자기자신을 수양하는 道로서 心內的 '敬'을 보전하게 되면 天理가 저절로 밝아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敬義直內'하여 그 뜻을 함양하고 直內로 근본을 삼고자 하였으며, 義는 敬으로서 자기자신을 수양한 道를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남명의 敬·義 사상은 실천철학이자 실용지학으로서의 생활철학이었다.

대순사상에 있어서의 敬은 공경, 경건, 외경 등으로 표현되는 단순한 사상사적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上帝와 신명앞에서의 엄숙한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대순사상에서 敬을 이야기함에 있어서는 경천과 수도를 따로 떼어서는 설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과 사물에 대한 敬의 마음은 상제님에 대한 외경의 마음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이는 결국 敬天의 자세로 이어지는 것이다. 敬天은 상제님에 대한 對越永侍의 마음에서 시작하여 행동으로 표현되는 禮義이다.

따라서 인간이 敬의 마음을 지니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덕을 준수하고 숭상하며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 이는 天이 곧 道이므로 天에 대한 외경은 도덕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국 敬과 敬天의 수양론은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한 방법론이 될 것이며, 이의 실천은 일심으로 훈회와 수칙을 생활화 하는 것으로 집약된다할 것이다.

그러나 誠·敬·信이 아무리 지극하여도 그 자신을 위하여 사용된다면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sup>60)</sup>을 익히 알고 있다.

결국 진정한 수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리고 수도의 궁극적 목적인 도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서 제기한 수양론의 실천과 함께 상제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친은(親恩)에 보답하는 심신일여(心身一如)의 수신이 되어야 하며, 항상 남을 잘되게 하는 순수한 마음의 견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60) 경석은 성(誠) 경(敬) 신(信)이 지극하여 달리 써 볼까 하였더니 스스로 칭하는 일이니 할 수 없도다.(전경, 공사 2/19:122)

【참고문헌】

대순진리회 교무부, 典經, 1974.

-----, 대순지침, 1984.

-----, 대순진리회요람. 1969.

論語

大學

中庸

孟子

書經

詩經

周易

二程全書

朱子大全

朱子語類

心經附註

心經發揮

退溪全書

陶山全書

南冥集

금장태, 한국유학의 탐구,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남명학연구원 부설 남명출판부, 남명학연구논총, 1988.

대순종학교재연구회, 대순사상의 이해, 포천:대진대학교 출판부, 1998.

박종홍, 韓國思想論攷, 서울:서문당, 1986.

배종호, 한국유학의 철학적 전개(上), 서울:연세대학교출판부, 1985.

이상은, 퇴계의 생애와 학문, 서울:서문당, 1978.

- 유명종, 한국사상사, 대구:이문출판사, 1995.
- , 성리학과 양명학,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1994.
- 윤사순, 한국유학사상론, 서울:예문서원, 1997.
- 정순목, 퇴계의 교육철학, 서울:지식산업사, 1986.
- 한국철학회편, 한국철학사(中), 서울:동명사, 1994.
- 노사광 著/정인재 譯, 중국철학사(송명편), 서울:탐구당, 1993.
- 모종삼 著/송향룡 譯, 중국철학특강, 서울:형설출판사, 1985.
- 방립천 著/김학재 譯, 중국철학과 지행의 문제, 서울:예문서원, 1998.
- 고교진, 퇴계학에 있어서 21세기의 인간상, 퇴계학보 제100집, 1998.
- 금장태, 퇴계의 수양론과 심학도의 해석, 퇴계학보 제96집, 1997.
- 김수청, 경사상연구, 퇴계학논총 제4집, 1998.
- , 朱熹의 敬思想 研究,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김태영, 退·栗 誠敬사상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배종호, 誠敬의 문제, 퇴계학보 제42집 퇴계학연구원, 1984.
- 손영식, 宋代 新儒學에서 哲學的 爭點의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신귀현, 自省錄을 통해 본 퇴계의 爲學方法論, 영남대학교 인문연구 제7집, 1985.
- 오석원, 퇴계의 성학에 관한 고찰, 대동문화연구 제24집, 1990.
- 윤기봉, 종교수도론 안에서의 삼요체의 의미구조, 대순사상논총 제9집, 1999.
- 윤천은, 퇴계철학에 있어서 도덕과 수양의 문제, 퇴계학 창간호, 1989.
- 이광호, 퇴계학문론의 체용적 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이경식, 퇴계도덕철학의 근본문제,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 제9집, 1991.
- 이기동, 이퇴계의 인도주의와 경, 퇴계학보 제54집, 1987.
- 이수건, 남명조식과 남명학과,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총설 제2,3집, 1982.
- 이소평, 이퇴계의 경철학과 미래의 인격발전, 퇴계학보 제87,88집, 1995.
- 장윤수, 퇴계사상의 구조와 윤리의식, 한국의 철학 제24집, 1996.
- 한명수, 퇴계 경에 관한 연구, 퇴계학 연구 제2집, 1973.